

제311회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11 호

국회사무처

2012년11월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대법관(김소영) 임명동의안
2. “한글날”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 | |
|---|----|
| 1. 대법관(김소영) 임명동의안 | 1 |
| 2. “한글날”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 |
|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3 |
| ○ 5분자유발언 | 3 |
| ○ 유엔사무총장(반기문) 연설 | 30 |

(14시06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대법관(김소영) 임명동의안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김소영)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서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 김소영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김소영)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김소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 주호영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김소영)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대구 수성구 출신의 주호영 의원

입니다.

대법관(김소영) 임명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고, 후보자에 대하여 대법관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소신, 사법제도 개혁과 사법정책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식견, 개인 신상 및 도덕성 등을 검증하여 10월 30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와 답변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소영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기간이 불과 8개월에 불과하여 최고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에 걸맞은 경륜과 재판 경험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장 배경과 경력 등을 볼 때에 이른바 법원행정처 출신의 엘리트 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이해하고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 낼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재산형성과정에서 일부 재산의 증가분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는 일부 청문위원들의 지적과 염려가 있었으나 후보자가 대법원 재판연구원, 법원

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면서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경험을 쌓았으며, 제1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양형기준의 초석을 다졌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분할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과 군복무 중 자살병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을 통해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배려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소신과 각오를 피력한 점, 여성인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현재 남성 위주의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경대수 의원, 김동완 의원, 한정에 의원, 홍익표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기 우측에 출력되는 투표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됩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13분 투표개시)

○의장 강창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29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가’ 223표, ‘부’ 7표, ‘기권’ 7표로서 대법관(김소영)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글날”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4시30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2항 “한글날”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전병헌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입니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이 천지자연의 소리 이치를 담아서 창제한 한글은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로 민족문화 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고, 정보화 진화도가 뛰어나 디지털 시대에 우수성이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류를 통해서 한글에 대한 교육 열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세계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창희 의장,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정부에서는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을 1990년 경제적 논리로 공휴일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국경일로 격상하였지만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되어 국민들이 한글의 창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글의 창제 반포를 기념하는 한글날이 국가적 경축일이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온 국민

이 한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9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3분)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14시34분)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김천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6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가 새로운 정치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을 때 국민들은 진짜 새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또 정치 경험이 전무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기성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50여 일이 지난 오늘까지 그분들이 내놓은 비전과 정책이 무엇입니까? 국민들께 보여 준 것이라고는 후보 단일화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새 정치가 아니라 현 정치 बे끼기, 구태 정치의 답습이었습니다.

홀로 설 능력이 안 되면 차라리 당의 간판을 내리는 것이 옳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병이 도지는 민주당의 야합놀음이 지긋지긋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정치 선진국에서 단일화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야합놀음에 국민들도 이제 지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같은 권력놀음으로 국민들을 이토록 피곤하게 할 것입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두 사람 사이에 묻지마 짝짓기 말고는 다른 공통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양쪽 진영이 벌이는 정치 기획안만 보더라도 두 사람은 결혼 상대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한 정략결혼은 반드시 파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NLL 영토주권 포기, 해군기지, 한미 FTA 문제 등에 대한 해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영토를 버리고 역사를 감추는 치욕의 현장에 있었던 장본인입니다. 10·4 선언 이행을 주장하지만 역사를 퐁퐁 숨겨 놓고 백지장 들고 이행하라는 것입니까?

서해 공동어로 수역 설정과 미군 철수 동의, 북핵 관련 대변인 역할론 등이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들입니다. 왜 문재인 후보는 제기된 의혹들에 침묵하고 있습니까?

해군기지 건설과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현란한 말 바꾸기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 관련 행사 축사에서 FTA 관련 원고를 세 번이나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오락가락 후보의 갈팡질팡 행보가 아니겠습니까?

더 웃기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침묵 모드입니다. NLL 문제로 정치권이 요동쳐도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단일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즉각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은 새누리당이 하지!』 하는 의원 있음)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후보가 비상시 어떻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정수 감축, 중앙당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이라는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조차도 두 사람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 후보의 무소속 집권론을 문 후보 측에서는 철부지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을 쇄신 대상이라고 말하는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구걸하는 민주당이 그저 딱해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에게 더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추구하는 정치 혁신이 고작 후보 단일화입니까? 두 후보의 단일화 게임은 바로 자신들의 지난 시절 부정한 이력들을 감추려는 정치 공학적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 규모의 싹쓸이 수입, 아들의 부정 취업, 불법 건축물, 이런 것들은 장관 인사청문회도 통과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의혹 등 비리 백화점의 주인입니다.

문 후보는 공직 임용 5대 불가 요건으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병역 비리, 논문 표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 후보의 단일화 상대인 안철수 후보에게 이 다섯 가지 중에 해당 안 되는 게 어느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도 자신이 당선되면 안 후보를 책임총리에 임명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이는 국민들을 향해 거짓말하는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공직 임용 5대 불가론에 안철수 후보는 예외입니까?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온갖 억지를 동원해 공격하고 있으면서 왜 안철수 후보에게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이유도 묻지 말고 정책도 묻지 말고 그저 묻지 마 투표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미 자신감을 상실한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밀실 야합 음모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화색이 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묻지마 짝짓기를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믿음의 정치, 소신의 정치를 펼치는 믿음의 박근혜를 국민들이 선택해 주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의원 이철우 의원님이 굉장히 멋쩍어 하면서 내려가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 장안구 출신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입니다.

새누리당은 상황이 어려운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안 처리가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옛그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님께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반대의 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3시간 늘리면 100억 원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공식 제기한 후보 중도 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과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새누리당표 오리발이라고 얘기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돈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은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하는 게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투표율이 올라가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진정 그런 것입니까?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이 진정 그렇게 무섭습니까? 상황이 좀 어려운 국민들이 투표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새누리당 오리발표입니다.

1998년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일본에서 2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투표율이 약 10% 정도 상승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07년 17대 대선을 기준으로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할 경우 투표율이 줄 잡아서 10%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비정규직을 포함한 약 360여만 명이 추가로 투표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

지요, 다?

박근혜 후보 말씀대로 100억 원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참정권, 기본권,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17대 대선을 기준으로 한 표에 들어간 비용을 따져보면 8574원입니다. 100억을 들어서 투표율을 17대 기준으로 10%를 상승시킨다고 봤을 때 한 표당 들어가는 비용이 7767원입니다. 807원이 비용이 내려갑니다. 비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효율이 높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투표를 하겠다는 분들을 자꾸 방해하려고 합니까? 혹시 더 들어가더라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선거일에 공휴일이지만 유급휴무로 인정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과 22.7%에 불과합니다. 77.3%가 투표 참여에 유·무형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이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67.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투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지만 지난 2009년 18대 천박연대 소속 김을동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투표시간 연장을 넘어서 아예 투표일에는 24시간 내내 투표할 수 있게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안의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를 반대하든, 투표를 하든 기권을 하든 적어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가의 최우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하는 국민들이 적을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알팍하고 정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유권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외치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투표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충남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으로 국민들께 별 낮이 없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법 제25조에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의원이 품위를 손상할 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을 하여 국회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녀’이라는 저급한 막말로 지난 8월 10일 제출된 국회의원 이종걸 징계안 심사를 위해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에서 수차례 요청한 윤리특위 회의 소집에 응하지도 않았으며, 오늘 오전에 열린 윤리특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종걸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 4명씩 추천하여 구성된 윤리특위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조차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였다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징계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윤리심사자문회의 자문의견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속속 발생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실정법 위반과 막말발언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윤리특위 회의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입니까?

현재 19대 국회 윤리특위에는 3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3명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징계사유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본 의원이 대표로 징계안을 발의한 배재정 의원의 행위는 더욱 심각합니다. 배재정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의 휴대폰 통화기록 촬영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배 의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타인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도용·누설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또 지난 10월 29일 징계안이 제출된 김광진 의원은 10월 19일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협한 역사관에 근거해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지칭하여 백 장군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당선되기 이전의 일이지만 2012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해 소원은 명박급사’라는 표현을 인용하여 국가원수를 모독하였고, 2011년 어버이연합 소속 노인들에게 ‘쓰레기 같은 것들과 말 섞기 싫어’ 등 상식 이하의 언행을 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성 변태적 발언 등은 정상적인 인격의 소유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급한 것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윤리특위 회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 국회의 품위를 저버리겠다는 것으로 19대 국회만큼은 성숙한 국회가 되기를 기대했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것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지향하는 쇄신의 정치입니까?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막말 후보 김용민을 공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막말 의원을 감싸는 막말통합당입니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만 해도 부끄럽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19대 국회가 이전과 달리 국회의원들 스스로 여야를 떠나 자정 기능을 갖춘 국회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윤리특위 회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민주당통합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통합당 정청래입니다.

화려한 거짓말 잔치는 끝났습니다. 진실게임은 그들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제 민족의 재단 위에 참회와 용서의 눈물을 뿌릴 때입니다. 게임값을 내야 할 때입니다.

2010년 10월 8일 외통위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백화원 초대소에서 단독 비밀 회담을 했고 회담 녹취록은 통전부가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 그 대화록은 폐기 지시했으나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 국정원 감사에

서 국정원장은 분명하게, 똑똑하게 비밀회담은 없었고 당연 비밀 녹취록도, 비밀 합의사항도, 북한의 통전부가 전해 준 녹음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배석자 있는 정상적인 정상회담 대화록만 존재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문헌 의원은 북한이 녹음해서 녹취록을 보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자신의 모든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허위사실에 기초한 지루한 진실게임은 이제 끝났습니다. 정문헌 의원은 게임 값을 내야 합니다. 정치적 생명을 스스로 내려 놔야 합니다. 정계 조퇴와 의원직 사퇴를 포함한 정치적 생명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담 이후 민주평통 연설에서 “나는 NLL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확인했으며, NLL 등거리·등면적 평화어로수역에 대한 제안에 대해 북한이 부당하게 NLL 남측만 공동어로수역으로 하자는 북한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반대했으며, 이는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에서 우리의 분명한 뜻을 전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남측만의 공동어로수역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배석자로 참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말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고 기록한 사람도 기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문헌 의원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러한 루머를 들었는지 이제 그가 밝힐 차례입니다. 정문헌 의원은 문헌에 기초하지 않고 루머에 의존해 거짓 선동을 한 책임, 박근혜 후보는 정문헌 의원의 허위사실 주장에 기름을 붓고 악의적으로 확대 과장 왜곡해서 남북정상 간의 회담을 자신의 득표 전략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석고대죄,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2002년 5월 13일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속기사만 배석한 채 단독 비밀회담을 가졌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증거입니다.

이 비밀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끼리 선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

력하자고 제안했고 박근혜 후보는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지도자의 2세로서 평화 정착에 노력하자고 했고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자라고 화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2세끼리,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끼리 선친의 목표를 달성하자는 말에 박근혜 후보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김정일의 이런 제안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면 북한에서 부자 권력세습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박근혜 후보는 북한의 부자 권력세습을 용인해 주고 김정일은 남한의 부녀 권력세습을 용인해 주는 이면 합의는 없었는지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제 정문헌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거짓말 잔치는 허망하게도 그들의 KO패로 끝났습니다. 진실 게임은 끝났고 정문헌 의원과 박근혜 후보는 패전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장담했던 정치적 생명, 게임값을 내야 합니다. 국익과 직결된 정상 회담을 대선 득표전략으로 전략시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정문헌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민족의 재단에 정치생명을 건 용서와 참회의 눈물을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동안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상회담과 그리고 비밀 외교문서를 둘러싼 자신의 악의적 대선 전략에 의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짓값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정문헌 의원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은희입니다.

이제 아름다웠던 가을이 쌀쌀한 찬바람과 함께 초겨울의 뒤편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는 또다시 앞으로 다가올 5년을 위한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선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 회자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는 여성과 남성, 특히 여성성에 대한 오해나 무지가 상당히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성이라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특성이라 결코 훼손될 수 없으며, 그 천성대로의 아름다움과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성이 더 우수하거나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차이가 있고 특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 여성성이 결혼이라는 것과 결합하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고, 사회와 결합하면 부드러움과 모성본능으로 사회를 보호하고 분열과 투쟁을 약화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여성 대통령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이자 정치 쇄신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의 실현이자 정치 혁신의 시작입니다.

정치적으로 여성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 탄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박근혜 후보에 대해 여성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며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성을 기존 통념에 얽매이게 하는 구태적이고 엄연한 성차별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경질적인 트집 잡기, 부끄러운 마음으로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여성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됩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박근혜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죄송하지만 참 안쓰럽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오랜 정치활동 과정에서 여성을 대변해서 활동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권위주의적 가부장제의 호주 폐지 청원에 앞장섰던 사람도 박근혜 후보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주요 전략지역에 여성 단체장을 과감하게 공천했습니다. 여성 인권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자발찌 제도의 도입까지 제안했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으로 2004년 당사에 보육시설을 앞장서서 설치해서 기업 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박근혜 후보입니다.

정치 쇄신을 얘기하면서 우선 혈뜯고 보자는 구태 정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성 대통령 선출, 변화와 정치 쇄신, 두렵습니까? 우선 혈뜯고 우기고 보자는 구태 정치의 타개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에는 여성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여성 대통령 탄생에 대한 기대는 그동안 변방

에 머물렀던 여성의 영역을 사회의 중심에 두는 대변혁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성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것이 곧 사회의 혁명적 변화요, 정치의 최고 쇄신이요, 여성사의 신시대를 펼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와 비생산적인 권력투쟁의 고리를 끊고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치의 변화와 쇄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가장 쉽고도 빠른 길입니다.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의 갈등을 치유하고 나아가 동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 여성 대통령후보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성 대통령의 탄생은 또 다른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혁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국민만 생각하고 국민과 늘 동행하는 신뢰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걱정해야 될 자식도, 섬겨야 될 부모도 안 계신 우리 박근혜 후보가 모두가 잠든 밤에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장내 소란)

바로 우리 대한민국, 바로 우리 국민, 바로 여러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최민희입니다.

대선 앞 50일, 이 민감한 시기, 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피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제 아버지를 놓아 드렸으면 한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놓아 드리는 것과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절 벌여졌던 반민주적 폭거들, 그것들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에게 불행했던 군부독재 유산, 그중에서도 강탈한 장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째, 시가 약 1조 원의 자산 정수장학회 그 일체의 재산의 국고 귀속 이후 김지태 유족과 함께 명실상부한 공익재단으로 부활시키길 제안합니다.

정수장학회, 두 차례 법원 판결 받았습니다. 법원은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사실 인정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재산반납 의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시효가 있지만 도덕적·정치적 책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박근혜 후보는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편 법원은 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명시하고 21억 3000만 원 배상 판결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정수장학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제2의 정수장학회, 민속촌 청산을 촉구합니다.

지난 1974년 박 정권의 강권으로 김정웅 씨는 개인 재산 7억 3000, 국가에서 6억 8000 지원받아 민속촌 세웠습니다. 그런데 민속촌 세워지고 나서 김정웅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이종사촌 형부인 정영삼 씨가 민속촌을 인수합니다. 정영삼 씨 민속촌 인수가 끝난 뒤 김정웅 씨는 법원 무죄 판결 받습니다.

제3의 정수장학회, 영남대는 어쩔 겁니까?

지난 1967년 정부가 청구대와 대구대를 강탈해 만든 게 영남대입니다. 정수장학회에 최필립 씨가 있다면 영남대에는 최외출 교수가 있습니다.

박 후보는 홍익재단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설악케이블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 한병기 일가가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국립공원에 특별히 설치해서 40년 동안 대를 이어 소유하며 돈 벌이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입니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박 후보와 무관합니까?

박 후보, 1995년부터 2005년 정수장학회 최장수 이사장 10억 이상 돈 받았습니다. 정수장학회·민속촌·설악케이블카 쪽으로부터 7100만 원에 이르는 후원금 받았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정식으로 대권 도전 의사 밝힌 다음 외신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에는 3대 세습의 자식, 남한에는 독재자의 딸,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요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독재자의 딸이라고 대통령후보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박 후보가 효도를 할지 정치를

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효도를 하려면 유신독재를 비롯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것 옹호하면 됩니다. 정치를 하려면 부친의 과오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군부독재 시절 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사유재산 강탈 및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터는 겁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강탈한 재산을 국고 환수할 법적 제도 마련에 함께 하는 겁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박근혜 후보의 결단으로 불행한 군부독재의 유산이 청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갈등과 반목을 넘어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한글날”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남인순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변재일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은혜	유일호	유정복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용섭
이우현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균	이재영	이재오
이종진	이주영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영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주홍	황진하	

반대 의원(4인)

金永柱	김진태	성완중	신동우
-----	-----	-----	-----

기권 의원(3인)

길정우	김종태	윤상현	
-----	-----	-----	--

(이용섭·심재권 의원 표결기 조작지체. 실제 투표 의원 198인, 찬성 의원 191인, 기권 의원 3인임)

○출석 의원(25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근태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백균기 변재일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연주 이에리사 이용섭
 이우현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균
 이재영 李率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혜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장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진영영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황
 황주홍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20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김관영 김광림 김근태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주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태년 김진태 김진표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변재일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안민석 안홍준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이군현 이명수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용섭 이인영 이재균
 이종진 이찬열 이학영 이현승
 임수경 임병헌 정몽준 정수성
 정청래 이우현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균 이종진 이찬열
 이학영 이현승 임수경 임병헌
 정몽준 정수성 정청래 이우현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균
 이종진 이찬열 이학영 이현승
 임수경 임병헌 정몽준 정수성
 정청래 이이재 이이재 이이재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균	이 재 영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정 희	전 해 철	정 두 언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정 식	조 현 룡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원 식
최 재 천	하 태 경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주 흥	황 진 하		

○산회 시 재석 의원(68인)

강 동 원	강 은 희	경 대 수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민 기	김 상 희	김 영 록	김 영 주
김 을 동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종 태
김 춘 진	김 태 호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현	김 형 태	도 중 환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홍 철	박 병 석	박 수 현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백 군 기	서 영 교	송 영 근
신 의 진	신 장 용	심 윤 조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병 윤	유 기 흥
유 성 업	유 은 혜	이 강 후	이 미 경
이에리사	이 윤 석	이자스민	이 장 우
李宰榮	이 종 진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임 수 경	장 하 나	전 정 희
정 성 호	정 진 후	정 청 래	한 명 숙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의 락	황 주 흥

○출장 의원(1인)

문 정 립

○청가 의원(20인)

김 광 진	남 경 필	노 회 찬	류 지 영
박 대 출	박 민 수	박 성 효	박 완 주
배 기 운	부 좌 현	신 경 립	심 재 철
염 동 열	윤 관 석	이 완 영	이 종 결
정 세 균	조 해 진	한 기 호	홍 지 만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윤 원 중
입 법 차 장	김 성 곤

의 사 국 장 한 공 식

【보고사항】

○의원 당직 변경

의원명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연월일
강동원 노희찬 심상정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진보 정의당	입당	2012. 10. 31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 병 석
10월 21일부터 의장 귀국 시까지
(2012. 10. 21)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대법관(김소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	주호영	새누리당	2012. 10. 24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대법관(김소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	강기윤 권은희	새누리당	2012. 10. 16
	김진태 이우현		
	주호영 홍일표		
	김성주 박혜자	민주통합당	
이춘석 전정희			
정호준 최원식			
	서기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대법관(김소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	홍일표	새누리당	2012. 10. 24
	이춘석	민주통합당	
	국회쇄신특별	함진규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정호준	정무	환경노동	민주통합당	2012. 10. 22
한정애	환경노동	정무		
신의진	보건복지	환경노동	새누리당	2012. 10. 24
김상민	환경노동	보건복지		
한정애	정무	환경노동	민주통합당	2012. 10. 25
정호준	환경노동	정무		
김상민	보건복지	환경노동	새누리당	10. 25
신의진	환경노동	보건복지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송호창	박수현	민주통합당	2012. 10. 10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특별	배재정	최민희	민주	2012. 10. 10
	송호창	민병두	통합당	
대법관(김소영) 암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	권은희	김종태	새누리당	2012. 10. 22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송호창	민주통합당	탈당	2012. 10. 10

○의안 제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권성동 · 강기윤 · 염동열 · 이이재 · 홍문표 · 김한표 · 李宰榮 · 김진태 · 노철래 · 김도읍 의원 발의)

10월 4일 아동 · 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회부

유동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정청래 · 강기정 · 민병두 · 박지원 · 배기운 · 유대운 · 유성엽 · 이미경 · 이상민 · 이춘석 · 인재근 · 최민희 · 최원식 · 최재성 · 한정애 의원 발의)

10월 5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

(이상 3건 2012. 10. 4 정부 제출)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이한성 · 정희수 · 유성엽 · 김태원 · 김춘진 · 김성곤 · 최원식 · 문병호 · 이에리사 · 박인숙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장애인 · 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이명수 · 정희수 · 김태흠 · 이현승 · 박수현 · 이이재 · 이노근 · 안효대 · 이윤석 ·

조현룡 · 박성효 · 김을동 의원 발의)

10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김제남 · 심상정 · 박원석 · 배기운 · 정진후 · 노회찬 · 조정태 · 전순옥 · 서기호 · 홍의락 · 강동원 · 이원욱 · 장하나 · 임수경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민병주 · 송광호 · 김현숙 · 신경림 · 김정록 · 이에리사 · 이균현 · 김세연 · 서상기 · 김태원 · 박인숙 · 박근혜 · 진영 · 이장우 · 나성린 · 김명연 · 이현재 · 손인춘 · 박대출 · 안종범 · 박성효 의원 발의)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민병주 · 송광호 · 김현숙 · 신경림 · 김정록 · 이에리사 · 이균현 · 김세연 · 서상기 · 김태원 · 박인숙 · 박근혜 · 진영 · 이장우 · 나성린 · 김명연 · 이현재 · 손인춘 · 박대출 · 안종범 · 박성효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5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심재철 · 김장실 · 민홍철 · 박인숙 · 김태원 · 유성엽 · 이종진 · 김광진 · 이철우 · 김명연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이철우 · 이종진 · 김세연 · 권은희 · 김을동 · 조현룡 · 이노근 · 안효대 · 함진규 · 이명수 · 강석호 · 이장우 · 김기현 · 신의진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신기남 · 이인영 · 김기준 · 윤후덕 · 정청래 · 박수현 · 배기운 · 최재성 · 전병헌 · 이미경 · 최원식 · 김경협 · 민홍철 · 진성준 · 우원식 · 오영식 · 김동철 · 유대운 · 주승용 · 강동원 · 김재윤 · 이낙연 · 김성곤 · 김관영 · 임수경 · 인재근 · 강창일 · 노회찬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김영록 · 김영환 · 김승남 · 김춘진 ·

배기운 · 신장용 · 이종걸 · 최규성 · 추미애 · 황주홍 · 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5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조원진 · 주호영 · 정수성 · 김을동 · 류지영 · 김재원 · 권은희 · 김희국 · 이철우 · 박대동 · 김상훈 의원 발의)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4 권성동 · 김도읍 · 김진태 · 노철래 · 강기운 · 염동열 · 이이재 · 홍문표 · 李宰榮 · 김한표 의원 발의)

10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김영록 · 강기정 · 김광진 · 김도읍 · 김영환 · 김성곤 · 김승남 · 김춘진 · 김태흠 · 배기운 · 신장용 · 이종걸 · 최규성 · 추미애 · 황주홍 · 홍문표 의원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김영록 · 강기정 · 김광진 · 김도읍 · 김영환 · 김성곤 · 김승남 · 김춘진 · 김태흠 · 배기운 · 신장용 · 이종걸 · 최규성 · 추미애 · 황주홍 · 홍문표 의원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김영록 · 김영환 · 김승남 · 김춘진 · 배기운 · 신장용 · 이종걸 · 최규성 · 추미애 · 황주홍 · 홍문표 의원 발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최규성 · 박기춘 · 노영민 · 김영록 · 배기운 · 김춘진 · 이찬열 · 황주홍 · 이춘석 · 김승남 · 김윤덕 · 이인제 · 김관영 · 진성준 · 김선동 · 강기정 · 이상직 · 박민수 · 홍문표 · 김우남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5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윤재욱 · 강기운 · 고희선 · 김성태 · 이종훈 · 유재중 · 김희국 · 이만우 · 홍지만 ·

박인숙 의원 발의)

10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4 정두언 · 김용태 · 홍지만 · 김세연 · 김장실 · 서상기 · 민병주 · 심학봉 · 김태호 · 이철우 · 박덕흠 · 남경필 의원 발의)

10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5 최규성 · 박기춘 · 노영민 · 김영록 · 배기운 · 김춘진 · 이찬열 · 황주홍 · 이춘석 · 김승남 · 김윤덕 · 이인제 · 김관영 · 진성준 · 김선동 · 이상직 · 박민수 · 김우남 의원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5 이노근 · 이종진 · 이한성 · 윤명희 · 조현룡 · 이에리사 · 안효대 · 김현숙 · 김기선 · 박인숙 · 전순옥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5 김윤덕 · 유성엽 · 신경민 · 이춘석 · 이상직 · 최민희 · 배기운 · 윤관석 · 김춘진 · 김성주 · 유승희 · 진성준 · 최규성 · 강동원 · 배재정 · 홍종학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5 신경민 · 김윤덕 · 인재근 · 최민희 · 강동원 · 유은혜 · 노용래 · 배재정 · 임수경 · 박홍근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5 송영근 · 김종태 · 남경필 · 류지영 · 서용교 · 손인춘 · 윤명희 · 정문헌 · 정수성 · 한기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가권력의 위법 · 부당한 행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및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진실규명 조사 활동 재개 촉구 결의안

(2012. 10. 5 인재근 의원 외 127인 발의)

10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2. 10. 5 서기호 · 박원석 · 정진후 · 장하나 · 박홍근 · 심상정 · 김제남 · 노회찬 · 강동원 · 김동철 · 임수경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5 서기호·강동원·김제남·문병호·배기운·신경민·심상정·이미경·임수경·전순옥·정진후·최원식·홍종학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5 민홍철·윤후덕·박남춘·노철래·박완주·김춘진·김기준·남인순·강기정·한정애·문희상 의원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

(2012. 10. 5 김현·유대운·최민희·최동익·정성호·김용익·우원식·강기정·이윤석·이용섭 의원 발의)

10월 2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2. 10. 5 김윤덕·유성엽·신경민·이춘석·이상직·최민희·배기운·윤관석·김춘진·김성주·유승희·진성준·최규성·강동원·배재정·홍종학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2. 10. 5 김윤덕·유성엽·신경민·이춘석·이상직·최민희·배기운·윤관석·김춘진·김성주·유승희·진성준·최규성·강동원·배재정·홍종학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2. 10. 5 오제세·변재일·김성주·조정식·임수경·배기운·주승용·유대운·최규성·신학용 의원 발의)

10월 8일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회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8 이병석·이자스민·원유철·심윤조·김영우·정문헌·황진하·이만우·유승우·이한성·김태원·이에리사 의원 발의)

10월 9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2. 10. 8 염동열·안효대·정문헌·권성동·유성엽·박인숙·조정식·이한성·김세연·이에리사 의원 발의)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0. 8 이명수·정희수·김태흠·이현승·박수현·이이재·이노근·안효대·이윤석·조현룡·李宰榮·박인숙·김을동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8 전해철·서영교·이상민·서기호·박범계·유대운·최규성·홍종학·박남춘·김재운·백재현·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이상 3건 2012. 10. 8 정부 제출)

이상 3건 10월 9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8 정부 제출)

10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8 김태원·이명수·정희수·이에리사·이노근·문대성·김희정·나성린·박성호·박인숙·김세연 의원 발의)

10월 9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8 문병호·김민기·홍종학·이용섭·배기운·이종걸·이상민·윤관석·신장용·김성주·장하나·홍영표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8 문병호·이용섭·배기운·이종걸·이상민·윤관석·신장용·김성주·장하나·홍영표·홍종학·김민기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12. 10. 8 문병호·홍종학·이용섭·배기운·이종걸·이상민·윤관석·신장용·김성주·장하나·홍영표·김민기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8 정부 제출)

10월 9일 농림수산물위원회에 회부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0. 9 이명수·정희수·김태흠·이현승·박수현·이이재·이노근·안효대·이윤석·조현룡·李宰榮·박인숙·김을동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9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2. 10. 9 정부 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2. 10. 9 조원진·홍지만·권은희·이종진·심학봉·윤재욱·최봉홍·주호영·김재원·성완중 의원 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2. 10. 9 김선동·배기운·김미희·민홍철·오병윤·김재연·이석기·이상규·최규성·유은혜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9 정부 제출)

10월 10일 농림수산물위원회에 회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海洋科學調査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2. 10. 9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10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2012. 10. 9 신성범·박상은·유승우·주영순·김한표·강기윤·여상규·안홍준·김상훈·유재중 의원 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12. 10. 9 최재천·김한길·노웅래·윤관석·김장실·배재정·주호영·이재영·신경민·도종환·김윤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9 정부 제출)

10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9 정부 제출)

10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2. 10. 9 한선교·조해진·윤상현·남경필·이우현·이재영·홍지만·문대성·유승민·조경태 의원 발의)

10월 10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2. 10. 9 남인순·이미경·박혜자·최원식·김제남·전순옥·김기식·박홍근·진선미·김상희·유승희 의원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2. 10. 9 남인순·이미경·박혜자·최원식·김제남·전순옥·홍종학·김기식·박홍근·진선미·김상희·유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2. 10. 9 남인순·이미경·박혜자·최원식·김제남·전순옥·홍종학·김기식·박홍근·진선미·김상희·유승희 의원 발의)

10월 10일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0 한선교·박창식·이우현·남경필·홍지만·이재영·박대출·문대성·김희정·서용교 의원 발의)

10월 11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0 김성곤·안민석·이원욱·문병호·유대운·배기운·심재권·조정식·신경민·최원식·정성호·황주홍·홍종학·전정희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10 김성곤·안민석·이원욱·문병호·유대운·배기운·심재권·조정식·신경민·최원식·정성호·황주홍·홍종학·전정희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0 김기선·권성동·김태원·윤상현·김명연·홍지만·이장우·정문헌·손인춘·박대출·김도읍·황영철·염동열·김희정·박성효·조해진·신의진·김춘진·이한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2. 10. 10 정부 제출)

10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10 정부 제출)

10월 11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0 원유철·김재경·박인숙·황진하·심윤조·이만우·이재영·손인춘·정희수·주호영·서병수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0 유성엽·이춘석·정성호·이에리사·김춘진·김상희·김우남·김형태·이낙연·윤명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0 유성엽·김우남·이춘석·유기홍·강동원·정성호·강창일·최민희·김춘진·전정희·배기운 의원 발의)

10월 1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0 유성엽·김우남·이춘석·유기홍·강동원·정성호·강창일·최민희·배기운·김춘진·최원식 의원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0 유성엽·김우남·김성주·이춘석·

유기홍·강동원·정성호·강창일·최민희·김춘진·전정희·배기운·김미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1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1 오제세·이낙연·임수경·배기운·유대운·조정식·최규성·박남춘·김상훈·김세연·남인순·최원식·전해철 의원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1 최동익·김대년·최민희·이원욱·이낙연·이미경·최원식·임수경·우윤근·전해철·배기운·안홍준·박민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1 신의진·정우택·박창식·김희선·고희선·진영·남경필·김장실·이이재·김도읍 의원 발의)

10월 12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1 신계륜·전정희·배기운·신경민·유성엽·김춘진·유은혜·조정식·문병호·박홍근·이낙연·유대운·임수경 의원 발의)

10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1 신계륜·전정희·배기운·신경민·유성엽·김춘진·유은혜·조정식·문병호·박홍근·이낙연·유대운·임수경 의원 발의)

10월 12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2 안홍준·이만우·김정록·이에리사·박창식·이우현·박인숙·이재영·문대성·김성태·신성범 의원 발의)

10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2 안홍준·金永柱·이만우·김정록·이에리사·박창식·이우현·박인숙·이재영·최동익·신성범 의원 발의)

10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대법관(김소영) 임명동의안

(2012. 10. 12 대통령 제출)

10월 16일 대법관(김소영)임명동의에관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2012. 10. 12 조경태·전병헌·배기운·홍종학·
김성곤·이만우·최원식·전순옥·강동원·
김제남 의원 발의)

10월 15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 의원 대표발의)**(2012. 10. 12 이상직·안규백·이춘석·유대운·
최원식·김기준·전순옥·유성엽·배기운·
강동원·문병호·김윤덕·김현미·정성호·
김성주·민병두·전정희 의원 발의)

10월 1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2012. 10. 12 김선동·이석기·김미희·김재연·
이상규·오병윤·박민수·황주홍·김승남·
김우남 의원 발의)

10월 15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한국방사선의학·과학기술원법안(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2012. 10. 15 하태경·이재균·이진복·나성린·
김도읍·현영희·김희정·이현승·김세연·
서용교·서병수 의원 발의)

10월 15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
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2012. 10. 15 변재일·신장용·장병완·조정식·
김관영·노영민·양승조·정우택·진성준·
백재현·윤진식·오제세·도종환·송광호 의원
발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2012. 10. 15 김성곤·배재정·임수경·유대운·
김경협·문병호·유은혜·배기운·전정희·
우윤근·박민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2012. 10. 15 강창일·오제세·우원식·최규성·
주승용·김동철·이찬열·배기운·이목희·
오영식 의원 발의)

10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2012. 10. 15 김성곤·김경협·우원식·문병호·
유대운·유은혜·배기운·전정희·우윤근·
박민수 의원 발의)

10월 15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2012. 10. 15 서영교·최재성·박기춘·백재현·
김동철·박홍근·박주선·김현미·이인영·
정세균 의원 발의)

10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2012. 10. 15 손인춘·김기선·김명연·진영·
박인숙·이만우·이장우·이현승·박성효·
정의화·이채익 의원 발의)

10월 1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15 정부 제출)

10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2012. 10. 16 김용태·한기호·이재오·정두언·
주영순·안덕수·김성태·김학용·박덕흠·
조해진·김재경 의원 발의)

10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2012. 10. 16 심재권·김명연·배재정·황주홍·
유대운·최민희·김태년·문병호·임수경·
김윤덕·전정희 의원 발의)

10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대표
발의)**(2012. 10. 16 홍종학·배기운·안민석·우원식·
박원석·임수경·한정애·유대운·김기식·
서영교·김현미·이인영 의원 발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2012. 10. 16 이명수·김태원·정희수·김을동·
정의화·李宰榮·이장우·이노근·안효대·
박상은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6 홍종학·배기운·안민석·우원식·박원석·임수경·한정애·유대운·김기식·서영교·김현미·이인영 의원 발의)

10월 17일 기획재정부위원회에 회부

학교사회복지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6 김세연·정두언·염동열·안효대·서상기·서용교·강은희·황우여·정갑윤·이에리사 의원 발의)

10월 17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6 이명수·김을동·정의화·정희수·李宰榮·이장우·이노근·안효대·박상은·이종진 의원 발의)

10월 18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201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2. 10. 16 정부 제출)

10월 17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6 정청래·박지원·한명숙·이상호·이미경·강기정·김우남·노웅래·최민희·김영환·배기운·이종걸·김윤덕·이원욱·박홍근·변재일·임수경·배재정·박주선·김경협·진성준·홍의락·백재현·전병헌·최재성·이용섭·이춘석·홍익표·강창일·김영록·추미애·민홍철·설훈·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2. 10. 17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18 정부 제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8 李宰榮·김상민·원유철·김세연·민현주·이만우·이종훈·진영·이명수·권성동·윤상현·이주영·남경필·권은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민행정피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8 황진하·김재원·오제세·손인춘·김한표·윤상현·박상은·이노근·이진복·이명수·황영철·김정록·이종진·박인숙·김춘진·정문헌·金永株·김기준 의원 발의)

10월 19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8 이해찬·김성주·김현·박수현·김태년·홍영표·유대운·안규백·문재인·이상민·최민희·박주선·조정식·원혜영·홍익표·신기남·정세균·이상호·전순옥·전병헌·신학용·오제세·우원식·유성엽·안민석·김민기·김기식·김우남·김영록·이석현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8 이해찬·이상민·박수현·김현·김태년·안규백·유인태·유대운·최민희·김상희·강창희·강기정·이낙연·배재정·박지원·박주선·조정식·원혜영·홍익표·신기남·윤진식·김태흠·송광호·정우택·이명수·홍영표·조정태·이윤석·배기운·홍종학·이용섭·추미애·임내현·성완중·김영주·박병석·박창식·강동원·金永柱·문정림·박남춘·박홍근·장하나·홍문표·최재성·이찬열·윤후덕·윤호중·남인순·이상직·이종걸·손인춘·오영식·전정희·김성곤·김현숙·김태원·김동철·신경민·노철래·강창일·김춘진·심재권·김기준·박성효·김광진·황주홍·신동우·이미경·유기홍·유승희·백군기·이춘석·양승조·한명숙·홍의락·이학영·장병완·은수미·주승용·노회찬·윤관석·박영선·정성호·최원식·문재인·한정애·김경협·이상규·정세균·박기춘·이상호·전해철·전순옥·전병헌·백재현·민병두·정호준·박민수·김용익·박범계·문희상·민홍철·박완주·진성준·임수경·이인제·박덕흠·유은혜·최규성·김관영·서영교·김성주·이인영·도종환·이장우·경대수·김동완·이원욱·정청래·문병호·김영환·김승남·김윤덕·우윤근·최동익·노영민·노웅래·부좌현·신장용·신학용·인재근·오제세·김한길·우원식·신계륜·김재윤·유성엽·안민석·

김민기 · 김기식 · 진선미 · 김우남 · 유기준 · 김영록 · 이석현 · 박혜자 · 김진표 · 이목희 · 설훈 · 최재천 · 김현미 · 이언주 · 변재일 · 김근태 의원 발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8 조경태 · 백재현 · 배재정 · 정세균 · 김제남 · 심상정 · 노회찬 · 민홍철 · 김성주 · 이원욱 · 이석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18 이해찬 · 김성주 · 김현 · 박수현 · 김태년 · 홍영표 · 유대운 · 안규백 · 문재인 · 이상민 · 최민희 · 박주선 · 조정식 · 원혜영 · 홍익표 · 신기남 · 정세균 · 우상호 · 전순욱 · 전병헌 · 신학용 · 오제세 · 우원식 · 유성엽 · 안민석 · 김민기 · 김기식 · 김우남 · 김영록 · 이석현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18 李宰榮 · 김상민 · 원유철 · 김세연 · 민현주 · 이만우 · 이종훈 · 진영 · 이명수 · 권성동 · 윤상현 · 이주영 · 남경필 · 권은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8 이해찬 · 김성주 · 김현 · 박수현 · 김태년 · 홍영표 · 유대운 · 안규백 · 문재인 · 이상민 · 최민희 · 박주선 · 조정식 · 원혜영 · 홍익표 · 신기남 · 정세균 · 우상호 · 전순욱 · 전병헌 · 신학용 · 오제세 · 우원식 · 유성엽 · 안민석 · 김민기 · 김기식 · 김우남 · 김영록 · 이석현 의원 발의)

10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8 김태흠 · 김정훈 · 이종진 · 홍문표 · 손인춘 · 정성호 · 김동완 · 이노근 · 황영철 · 이에리사 의원 발의)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안

(이상 2건 2012. 10. 18 정부 제출)

이상 3건 10월 19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외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 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정문헌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19 정문헌 · 김희정 · 정병국 · 정수성 · 이이재 · 황영철 · 홍일표 · 장윤석 · 조명철 · 한기호 · 염동열 · 김진태 의원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9 정문헌 · 홍일표 · 조명철 · 김희정 · 황영철 · 한기호 · 정수성 · 정병국 · 이이재 · 김진태 의원 발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9 최규성 · 박기춘 · 노영민 · 김영록 · 배기운 · 김춘진 · 이찬열 · 황주홍 · 이춘석 · 김승남 · 김윤덕 · 이인제 · 이상직 · 김재원 · 이재오 · 윤진식 · 정병국 · 이낙연 · 신성범 · 김선동 · 황영철 · 홍문표 · 이운석 · 경대수 · 윤명희 · 박민수 · 김근태 · 노철래 · 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2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9 최재천 · 정성호 · 유대운 · 김윤덕 · 배기운 · 남경필 · 홍지만 · 민병두 · 김을동 · 전순욱 · 신장용 · 이미경 의원 발의)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19 정부 제출)

10월 22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9 김을동 · 윤명희 · 최봉홍 · 정갑윤 · 이노근 · 남경필 · 이종진 · 김영우 · 서상기 · 이명수 · 박인숙 · 김재원 의원 발의)

10월 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9 김을동 · 이노근 · 남경필 · 윤명희 · 김영우 · 서상기 · 이명수 · 김재원 · 李宰榮 · 주승용 의원 발의)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9 주승용 · 정의화 · 김광진 · 이춘석 · 김을동 · 김영환 · 배기운 · 김영록 · 이미경 · 강창일 · 안규백 · 신장용 · 김성주 · 김관영 ·

박기춘 · 이낙연 · 김동철 · 김성곤 · 이윤석 · 양승조 · 황주홍 · 김승남 · 박수현 · 우윤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19 김을동 · 이명수 · 고희선 · 이에리사 · 최봉훈 · 정갑윤 · 이노근 · 남경필 · 이종진 · 윤명희 의원 발의)

10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배재정) 징계안

(2012. 10. 22 김태흠 · 손인춘 · 신의진 · 정문헌 · 권성동 · 나성린 · 여상규 · 김희정 · 김진태 · 김학용 · 김희선 · 노철래 · 이주영 · 정갑윤 · 경대수 · 김세연 · 남경필 · 박인숙 · 김을동 · 이철우 · 이현재 · 김기선 · 박대출 · 김명연 · 홍지만 · 심재철 의원 요구)

10월 22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2 이이재 · 권성동 · 박인숙 · 김을동 · 윤진식 · 김진태 · 김한표 · 안효대 · 정문헌 · 황영철 의원 발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2. 10. 22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23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22 정부 제출)

10월 23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2 하태경 · 나성린 · 이현승 · 김희정 · 이진복 · 서병수 · 서용교 · 김도읍 · 김세연 · 함진규 · 이재균 의원 발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2 홍종학 · 배기운 · 안민석 · 우원식 · 박원석 · 임수경 · 한정애 · 유대운 · 김기식 · 서영교 · 김현미 · 이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2 전병헌 · 정성호 · 신경민 · 김윤덕 · 최민희 · 도중환 · 강동원 · 박주선 · 진성준 ·

박남춘 의원 발의)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2 박영선 · 이춘석 · 서영교 · 우윤근 · 홍종학 · 최원식 · 양승조 · 백재현 · 김동철 · 전병헌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2012. 10. 22 정부 제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2 하태경 · 김세연 · 조명철 · 한기호 · 이이재 · 나성린 · 이자스민 · 정문헌 · 함진규 · 김태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22 정부 제출)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22 정부 제출)

10월 23일 농림수산물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2 정진후 · 김제남 · 박홍근 · 박원석 · 유성엽 · 심상정 · 서기호 · 노회찬 · 강동원 · 이목희 · 홍영표 의원 발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2 정진후 · 김제남 · 박홍근 · 박원석 · 유성엽 · 심상정 · 서기호 · 노회찬 · 강동원 · 이목희 · 홍영표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2 정진후 · 김제남 · 박홍근 · 박원석 · 유성엽 · 심상정 · 서기호 · 노회찬 · 강동원 · 이목희 · 홍영표 의원 발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2 정진후 · 김제남 · 박홍근 · 박원석 · 유성엽 · 심상정 · 서기호 · 노회찬 · 강동원 · 이목희 · 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22 정부 제출)

10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22 정부 제출)

10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3 홍종학·인재근·변재일·우윤근·이낙연·박민수·임수경·김춘진·오제세·김현미·김기준·배기운·유은혜·안민석·이인영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3 유정복·손인춘·김정록·조현룡·김성찬·최봉홍·신경림·류지영·김재경·서상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3 유기홍·김태년·한정애·전병헌·박원석·유대운·이미경·배기운·유성엽·안민석·김선동·이석기·오병윤·김미희·이상규·김재연·최민희·박민수·최원식·우원식·전순옥·양승조·김춘진·노웅래·강기정·임수경·설훈·김태원·박홍근·이목희·이용섭·유은혜·이상민·정진후·김상희·윤호중·박혜자·김현미·정호준·이인영 의원 발의)

10월 25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3 오병윤·배기운·박민수·유성엽·이미경·김선동·김미희·김재연·이석기·이상규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23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24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3 이명수·이노근·이재균·이종진·이이재·이장우·안효대·박상은·강석호·이현승 의원 발의)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3 유정복·손인춘·김정록·조현룡·

김성찬·최봉홍·신경림·류지영·김재경·서상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3 최동익·도중환·배기운·유대운·이낙연·한명숙·이목희·민홍철·문병호·양승조·유기홍 의원 발의)

10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2. 10. 23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4 이명수·이노근·이재균·이종진·이이재·이장우·박상은·강석호·이현승·김을동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4 유대운·강기윤·김민기·金永柱·김현·문화상·박남춘·박덕흠·박성효·백재현·유승우·윤재옥·이상규·이재오·이찬열·임수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4 조원진·정문헌·金永柱·김춘진·이현재·이한성·김장실·유성엽·황영철·박인숙·윤재옥·이명수 의원 발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4 이윤석·김을동·민홍철·박기춘·박수현·변재일·이미경·임내현·오병윤·윤후덕·주승용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5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4 조원진·이한성·황영철·이현재·윤재옥·홍지만·김상훈·김재원·권은희·이종진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4 나성린·홍지만·김성찬·이만우·이한성·박인숙·이재영·김광림·하태경·이현승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4 전병헌·유대운·배기운·유성엽·김제남·박주선·박남춘·김윤덕·안민석·배재정·김기준·홍종학 의원 발의)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안

(2012. 10. 24 정부 제출)

10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4 박민식·조원진·유일호·강석훈·김재경·박대동·송광호·신동우·김종훈·김용태·안덕수 의원 발의)

10월 25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4 이상민·유대운·민홍철·박성호·안민석·주승용·박병석·박범계·김현미·정진후 의원 발의)

10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5 이낙연·신계륜·이원욱·최동익·유대운·김현미·김승남·배기운·홍종학·오제세·전정희·정성호 의원 발의)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최재성 의원 발의)

(2012. 10. 25 최재성 의원 외 9인 발의)

10월 29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5 남인순·이미경·윤관석·김제남·전순옥·홍종학·유은혜·한명숙·진선미·김상희 의원 발의)

10월 29일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 위원회에 회부

“한글날”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

(2012. 10. 2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5 전병헌·정성호·신경민·김윤덕·최민희·도중환·김관영·유승희·강동원·

박남춘 의원 발의)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5 김한길·전병헌·한명숙·윤관석·최민희·김경협·신장용·김윤덕·추미애·진성준·신경민·민홍철·정성호·홍종학·김광진·전정희·유성엽·주승용·강기정·유대운·황주홍·김재윤·오제세·김성곤·유은혜·도중환·배재정·변재일·김영주·이인영·김영환·김동철·문병호·노웅래 의원 외 93인 발의)

10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5 길정우·신의진·이완영·유승우·정문헌·김장실·이만우·김을동·이노근·홍지만·이재영·김성곤·권성동·염동열·이우현 의원 발의)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5 이명수·이재균·윤진식·민홍철·박수현·임내현·오병윤·함진규·이이재·이노근 의원 발의)

10월 26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5 김을동·한선교·김장실·이우현·박대출·김희정·박창식·조해진·염동열·최재천·유승우·이명수·李宰榮·노철래·박대동·홍지만·이윤석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5 이윤석·강동원·김관영·김승남·민홍철·박기춘·배기운·신장용·윤후덕·이명수·이미경·홍종학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6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5 박대동·한기호·김을동·정희수·이만우·이재영·홍문표·김상훈·이완영·강길부 의원 발의)

10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5 이윤석·김광영·김을동·민홍철·박기춘·박수현·변재일·윤후덕·이미경·홍영표 의원 발의)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5 윤관석·박기춘·박범계·박수현·박홍근·부좌현·서영교·양승조·원혜영·윤호중·이언주·정호준·한정애 의원 발의)

10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 등 촉구 결의안

(2012. 10. 2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2. 10. 26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29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조경태·전순옥·안민석·김관영·황주홍·김영록·백재현·이종걸·임내현·김경협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박주선·오제세·김민기·최규성·홍의락·조정식·김현미·양승조·박남춘·최민희·김성주·김광진·김영록·안규백·이종걸·정성호·김우남·강기정·김관영·박영선·원혜영·배기운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서병수·김현숙·홍지만·박민식·유기준·김정록·전하진·이만우·정갑윤·황영철·이채익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박주선·오제세·김민기·최규성·홍의락·김현미·양승조·박남춘·최민희·김성주·김광진·김영록·안규백·이종걸·정성호·김우남·강기정·김관영·박영선·김춘진·원혜영·유기홍·배기운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박주선·오제세·김민기·최규성·

홍의락·김현미·양승조·박남춘·최민희·김성주·김광진·김영록·안규백·이종걸·정성호·김우남·강기정·김관영·박영선·김춘진·원혜영·유기홍·배기운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김종태·유승우·유성엽·김성곤·김영우·이한성·이종진·박인숙·송광호·김도읍·정문헌·이완영 의원 발의)

10월 2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박영선·우윤근·김현미·정청래·신기남·전해철·서영교·김성주·최규성·이춘석·유은혜·김광진·신장용·박홍근·배기운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2. 10. 26 정부 제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희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고희선·박성호·이재오·민현주·남경필·박성효·이재영·박덕흠·전하진·유승우·정희수·김한표·윤명희·윤재옥 의원 발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희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고희선·이재오·민현주·남경필·박성효·이재영·박덕흠·전하진·유승우·정희수·김한표·윤명희·윤재옥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희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고희선·김한표·신의진·윤명희·정희수·유승우·이재영·김희국·이재오·전하진 의원 발의)

이상 6건 10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박주선·오제세·김민기·최규성·홍의락·조정식·김현미·양승조·박남춘·최민희·김성주·김광진·김영록·안규백·이종걸·정성호·김우남·강기정·김관영·박영선·김춘진·원혜영·배기운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김현미·김태년·박원석·우윤근·유대운·유은혜·이낙연·이상민·이목희·인재근·임수경·전정희·정성호·조정식·최민희·최원식·최재성·홍종학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나성린·하태경·이만우·원유철·성완중·이철우·여상규·신의진·이완영·김광림 의원 발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나성린·이만우·신경림·하태경·李宰榮·원유철·성완중·이철우·여상규·신의진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나성린·이만우·김성곤·이한성·김태원·정성호·박인숙·권은희·이완영·이현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나성린·유기준·이만우·이재영·김도읍·이완영·하태경·원유철·박대동·성완중 의원 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안홍준·이만우·신경림·민홍철·문대성·박덕흠·고희선·조명철·문정림·길정우·이명수·김정록 의원 발의)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012. 10. 26 정부 제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강창일·최규성·임수경·이목희·배기운·신장용·홍종학·주승용·김성곤·이미경 의원 발의)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이노근·이명수·안효대·박수현·이종진·윤진식·이재균·이장우·조현룡·이이재·이현승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이이재·이장우·이현승·이종진·조현룡·이명수·이노근·안효대·함진규·

강석호·박상은·김태흠·전하진·김태환·남경필·김세연·홍문종·유승우·한기호·이종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9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9 박상은·유승우·최봉홍·신성범·안덕수·윤진식·이재균·이이재·윤상현·김태흠·정의화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9 유정복·손인춘·김정록·조현룡·김성찬·최봉홍·김동완·류지영·김재경·서상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30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9 이상규·김선동·오병윤·이석기·김미희·정진후·김제남·김재연·이석현·金永柱 의원 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9 유정복·손인춘·김정록·조현룡·김성찬·최봉홍·신경림·류지영·김재경·서상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9 전병헌·임수경·노웅래·유성엽·배재정·도종환·신경민·최민희·최재천·윤관석·김윤덕·정세균·강동원·배기운·박민수·홍종학·김성곤 의원 발의)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김광진) 징계안

(2012. 10. 29 김명연·김기선·김도읍·김을동·박대출·서용교·손인춘·신의진·이장우·이철우·이현재·홍지만·한기호·김성찬·김종태·송영근·유기준·유정복·정희수·박인숙·김태흠·경대수 의원 요구)

10월 29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29 정부 제출)

10월 3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9 나성린·유기준·황진하·이만우·정성호·윤영석·김장실·이완영·김관영·성완중 의원 발의)

10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9 박지원·윤관석·서영교·정호준·부좌현·박수현·박범계·우원식·이춘석·서기호·박영선·전해철 의원 발의)

10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이상규·노회찬·김제남·김선동·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석기·박원석·정진후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박수현·김현미·백군기·양승조·원혜영·이미경·이윤석·조정식·주승용·최원식·황주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장하나·조정식·한정애·배재정·임수경·박홍근·배기운·신경민·윤관석·김한길·김광진·서영교·김제남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김광진) 사퇴 촉구 결의안

(2012. 10. 30 김기선·김도읍·김을동·박대출·서용교·손인춘·신의진·이장우·이철우·이현재·홍지만·김명연·이현승·류지영·염동열·李宰榮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이만우·이한성·李宰榮·정두언·박원석·강길부·나성린·류성걸·손인춘·이에리사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3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김윤덕·유성엽·신경민·이춘석·이상직·최민희·배기운·김관영·윤관석·김춘진·유승희·김성주·진성준·최규성·배재정·홍종학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강창일·주승용·김성곤·이미경·

배기운·장병완·이목희·우원식·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이상일·김을동·김진태·김재원·김태환·신의진·권은희·박덕흠·유승우·주호영·이자스민·홍지만·조원진 의원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이상일·노철래·김을동·김진태·김재원·김태환·신의진·박덕흠·유승우·주호영·이자스민·홍지만·조원진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심재철·金永柱·전병헌·이노근·김춘진·박인숙·김민기·이만우·정성호·주영순·박민수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이철우·최원식·신경림·이만우·김태흠·정두언·이종진·홍지만·심학봉·여상규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강길부·박대동·정갑윤·강기운·이만우·박상은·이노근·권은희·李宰榮·강석호·안호대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31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김승남·우윤근·김재윤·김성곤·배기운·김상희·정성호·민홍철·전정희·김영록 의원 발의)

10월 31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이한성·임수경·박민수·이만우·안민석·윤호중·설훈·이인영·박원석·최경환·홍종학·나성린·조정식·李宰榮·이채익·경대수·염동열 의원 발의)

10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이노근·임수경·이종진·이명수·윤진식·이재균·이장우·조현룡·이이재·이현승·김도읍·손인춘·홍문중 의원 발의)

10월 31일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이만우·이한성·李宰榮·정두언·박원석·강길부·나성린·류성걸·손인춘·이에리사 의원 발의)

10월 3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김성찬·이강후·박상은·김형태·강기윤·한기호·김도읍·박성호·서용교·송영근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김용익·변재일·김성주·박홍근·배재정·양승조·이목희·도종환·은수미·최동익·전순옥·이연주 의원 발의)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오영식·강창일·조경태·전순옥·홍의락·김동철·노영민·추미애·김영록·전정희·강기정·박완주·이원욱·박홍근·우윤근·김제남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31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김용익·박완주·변재일·김성주·박홍근·배재정·양승조·이목희·도종환·은수미·최동익·이연주 의원 발의)

10월 3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심상정·김제남·노회찬·박원석·정진후·은수미·장하나·전순옥·이미경·강동원·한명숙·서기호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유성엽·최민희·배기운·강동원·이춘석·전병헌·안민석·유은혜·정진후·전순옥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이철우·정희수·김근태·심학봉·

김성주·유성엽·김영록·정두언·박민수·이장우 의원 발의)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이철우·정희수·김근태·심학봉·김성주·유성엽·김영록·정두언·박민수·이장우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이만우·박대동·나성린·서병수·원유철·박덕흠·안홍준·이재영·안덕수·강기윤·고희선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31 정부 제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박완주·최동익·이춘석·우윤근·이원욱·인재근·부좌현·전순옥·이학영·김동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유성엽·최민희·배기운·강동원·이춘석·전병헌·신경림·이용섭·유은혜·정진후·김관영 의원 발의)

11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유기홍·유은혜·배기운·유대운·유성엽·문병호·우원식·이용섭·정진후·김상희·박홍근·심상정·전해철·김태원·신경민 의원 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유성엽·최민희·배기운·강동원·이춘석·전병헌·신경림·이용섭·유은혜·정진후·김관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유성엽·최민희·배기운·강동원·이춘석·전병헌·신경림·이용섭·유은혜·

정진후 · 김관영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이상직 · 진성준 · 조정식 · 이종걸 · 안규백 · 이석현 · 노웅래 · 김성곤 · 김관영 · 김윤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우원식 · 강동원 · 김동철 · 김미희 · 김민기 · 김성곤 · 박범계 · 박수현 · 배기운 · 신장용 · 유대운 · 유성엽 · 유은혜 · 이목희 · 이미경 · 이춘석 · 인재근 · 정성호 · 조정식 · 최동익 · 최원식 의원 발의)

**11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31 윤명희 · 신성범 · 이만우 · 홍문표 · 황영철 · 고희선 · 이완영 · 정희수 · 김을동 · 김성곤 · 민홍철 의원 발의)

11월 1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2012. 10. 31 이윤석 의원 외 126인 요구)

국회의원(정문헌) 징계안

(2012. 10. 31 윤관석 의원 외 126인 요구)

**이상 2건 10월 31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걷는 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원혜영 · 배기운 · 박주선 · 김영주 · 박남춘 · 조경태 · 문병호 · 정병국 · 도종환 · 안민석 · 김현 · 이석기 · 신경민 · 김윤덕 의원 발의)

**11월 1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31 안민석 · 한정애 · 박영선 · 유대운 · 배기운 · 김관영 · 박민수 · 홍종학 · 유성엽 · 김현미 의원 발의)

11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보건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31 김용익 · 양승조 · 최동익 · 김성주 · 박홍근 · 이원욱 · 김현 · 이미경 · 도종환 · 박완주 · 배재정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김용익 · 최동익 · 김성주 · 박홍근 · 이원욱 · 김현 · 이미경 · 도종환 · 박완주 · 배재정 · 이목희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31 김용익 · 양승조 · 최동익 · 김성주 · 박홍근 · 이원욱 · 김현 · 이미경 · 도종환 · 박완주 · 배재정 · 이목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3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휴회의 건**

(2012. 11. 1 의장 제의)

11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20일간)

○의안 심사

대법관(김소영) 임명동의안

(2012. 10. 12 대통령 제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대법관(김소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
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 발의)

(2012. 9. 25 한선교 · 김근태 · 윤상현 · 문대성 · 남경필 · 조해진 · 이한성 · 홍지만 · 이우현 · 이재영 · 유승민 · 조경태 의원 발의)

10월 9일 발의자 철회 요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 발의)

(2012. 8. 17 최재천 · 이종걸 · 심상정 · 배재정 · 최민희 · 김윤덕 · 신경민 · 전정희 · 배기운 · 민홍철 · 김현미 · 정성호 · 윤관석 · 서영교 · 박원석 · 김성곤 · 홍종학 의원 발의)

10월 11일 발의자 철회 요구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2. 9. 27 주승용 · 김승남 · 이춘석 · 정성호 · 우윤근 · 김광진 · 이상민 · 정의화 · 박수현 · 김성주 · 신장용 · 변재일 · 홍영표 · 장병완 · 오영식 · 박기춘 · 노영민 · 이낙연 · 김성곤 · 김영환 · 배기운 · 이종걸 · 김을동 · 안규백 · 진성준 · 양승조 · 김동철 · 이윤석 · 김영록 · 조정식 · 이미경 · 황주홍 · 강창일 · 박지원 · 최규성 · 오제세 · 신학용 · 김관영 의원 발의)

10월 19일 발의자 철회 요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6 홍종학·배기운·안민석·우원식·박원석·임수경·한정애·유대운·김기식·서영교·김현미·이인영 의원 발의)

10월 2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8 문병호·김민기·홍종학·이용섭·배기운·이종걸·이상민·윤관석·신장용·김성주·장하나·홍영표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8 문병호·이용섭·배기운·이종걸·이상민·윤관석·신장용·김성주·장하나·홍영표·홍종학·김민기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12. 10. 8 문병호·홍종학·이용섭·배기운·이종걸·이상민·윤관석·신장용·김성주·장하나·홍영표·김민기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30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12. 10. 4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중소기업인넷(참여연대 4층)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인태연으로부터 오영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2012. 10. 4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중소기업인넷(참여연대 4층)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인태연으로부터 오영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0월 9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한방비급여 진료비의 실손보험 보상 제외 표준약관 개정에 관한 청원

(2012. 10. 10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20-1 신준식 외 1인으로부터 김재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

(2012. 10. 2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번지 금은빌딩 독도수호대 대표 김점구 외 1만 1120인으로부터 우상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보령공군사격장 인근 환경피해 조사 및 보령 앞바다 환경정화 긴급요청에 관한 청원

(2012. 10. 26 청남 보령시 신후동 1458-8번지 공군사격장환경피해협의회 회장 문수환 외 364인 으로부터 손인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 3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요구서 제출

쌍용자동차 정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12. 10. 4 홍영표 의원 외 127인 제출)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2012. 10. 12 정문헌 의원 외 80인 제출)

○추천의뢰서 제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2. 10. 24 대통령 제출)

○계획서 제출

2012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

(2012. 10. 11 정부 제출)

소관 상임(정보 제외)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대통령실, 공무원 대통령실 출입내역 관련 자료 축구의 건

(2012. 10. 8 안민석 의원 제출)

도청방지 대책에 관한 서면질문(2건)

(이상 2건 2012. 10. 24 김희국 의원 제출)

물품관리 주무처인 조달청의 허술한 물품관리 관련 문제제기의 건(2건)

국립대학교 물품관리 관련 문제제기의 건

(이상 3건 2012. 10. 31 안민석 의원 제출)

국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대한 서면질문(2건)

(이상 2건 2012. 10. 31 진성준 의원 제출)

○서면질문서 철회

국세청 보안감사결과에 관한 질문서

(2012. 9. 28 이만우 의원 제출)

10월 10일 제출의원 철회 요구

국정감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의 채용비리) 관한 질문서

(2012. 9. 26 이만우 의원 제출)

10월 19일 제출의원 철회 요구

○서면답변서 제출

공무원 안전보장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2. 10. 5 정부 제출)

국정감사(한국방송공사 이사 허위학력 의혹관련)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2. 10. 8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세종시 관문공항인 청주공항의 위상 강화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2. 10. 9 정부 제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에 대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2. 10. 9 감사원장 제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민생침해사업자 및 역외탈세자의 세금 추징 및 징수
현황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12. 10. 15 정부 제출)

**중앙행정기관 퇴직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이직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중앙행정기관의 고졸, 전문대졸 채용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12. 10. 18 정부 제출)

국정감사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2. 10. 30 정부 제출)

**대통령실, 공무원 대통령실 출입내역 관련 자료
촉구의 건에 대한 답변서**

(2012. 10. 31 정부 제출)

(이상 10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실적 및 계획

(2012. 10. 2 정부 제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수행 통계자료 보고

(2012. 10. 11 금융위원회 제출)

정무위원회에 회부

2011 연차보고서

(2012. 10. 2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금융안정보고서

(2012. 10. 31 한국은행 제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통지

중앙당 등록

2012. 10. 3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부터
진보정의당의 중앙당 등록 통지가 있었음

명칭	대표자	연월일
진보정의당	노회찬·조준호	2012. 10. 31

유엔사무총장(반기문) 연설

일 시 2012년10월30일(화) 오전 11시
장 소 국회본회의장

○ 환영사

○의장 강창희 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도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연설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반 사무총장님을 소개드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께서는 어제 서울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귀빈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이끌고 계신 유엔은 창설 67년 동안 인류사를 새롭게 써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이 이루어 낸 빛나는 업적을 총체적으로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엔은 헌법의 제정과 건국에서부터 전쟁의 극복과 재건 그리고 경제적 성취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유엔이 없이 대한민국을 생각하기 어렵고 대한민국을 빼놓고 유엔의 역사를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인과 함께 인류가 희생당하는 분쟁의 현장과 인권이 말살당하는 압제의 현장에서 세계인의 지혜와 노력을 결집하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봅니다. 우리는 또한 낙후 지역 여성과 아동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Every Woman, Every Child' 운동에 열정을 쏟는 반기문 총장을 봅니다. 반 총장님의 헌신과 열정에 세계인은 박수와 사랑을 보냅니다. 우리는 너나없이 그 모습이 자랑스럽고 가슴이 뿌듯합니다.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반 총장께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가난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세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반 사무총장께서 Korean Dream의 표상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꿈과 용기를 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굳건한 초석을 쌓으셔서 우리 젊은이들은 물론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신화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기문 사무총장의 오늘의 연설은 지난 8월 반 사무총장께서 국회를 방문하셨을 때 요청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반 총장께서는 흔쾌히 제 요청을 수락해 주셨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연설을 듣기에 앞서 반 총장님의 반려자, 아름답고 자애로우신 유순택 여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유 여사님,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택 여사 인사)

(일동 박수)

이제 반 사무총장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오늘 연설은 유엔사무총장 자격으로 하시기 때문에 영어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국의 국회 연설인 만큼 특별히 한국어로 하시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을 방문하시는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유엔 회원국의회에서 한국어로 연설하시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 유엔사무총장(반기문) 연설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The Honorable Kang Chang He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Honorab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eign Minister Kim Sung Hwan, Your Excellencies, Members of the diplomatic corps in Korea,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an!

I am deeply honored to be the first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to address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Ordinarily, as Secretary General, I should speak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United Nations.

But as a Korean, speak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my motherland, I hope you will understand why I will speak today in my mother tongue.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한 외교단과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과 유엔의 길고 특별한 인연을 생각할 때 저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유엔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과 유엔의 특별한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194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총선에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선거감시단을 파견하였습니다. 2년 뒤 한국전 발발로 유엔군이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오면서 한국에게는 또 모든 한국 국민에게는 유엔이 더욱 소중한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엔은 전 세계 가난한 나라,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도움으로 한국은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고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경제 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오늘 한국은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헌장상의 모든 이상과 목표를 잘 대변하는 모범 사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세계 각국을 다닐 때마다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 개발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의 한국 배우기 열풍이 얼마나 큰지 저

자신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한국은 문화 스포츠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의 ‘강남스타일’ 열풍이 보여주듯이 한류, K-pop을 통해서 한국은 세계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런던올림픽에서 보여준 한국의 저력에도 세계 스포츠계가 놀랐습니다. 이처럼 젊고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한국은 지금 지구촌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류가 꿈꾸는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의 미래를 향해서 한국과 유엔이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저는 국민의 뜻과 열망을 대변하는 국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계 어디를 방문해도 그 나라 의회 지도자들과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IPU 총회도 제가 자주 참석을 했습니다.

의회는 국민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기는 뜻 피플 퍼스트(Put people first) 국가기관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역할은 위 더 피플스(We, the peoples)라는 유엔 헌장상의 정신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은 불확실성과 격변의 시대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불안정 불평등 부정의 불관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국가 또는 한 조직의 노력만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도전은 보다 효율적인 전 지구적 개입과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새롭게 강화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장 보편적인 범세계적 기구로서 인류의 공동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도처에 가장 광범위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서 유엔의 재정형편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의 악화로 세계의 취약계층을 도와야 하는 유엔의 활동수요는 더욱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안보, 개발, 사회분야에서 늘어나는 수요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도와주었을 때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경제가 어렵고 국내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멀리 있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느냐’

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올바른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국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금년 초에 저는 이러한 세계적 연대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제2기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앞으로 5년간 중점을 둘 우선순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의 전면적인 개혁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서 보다 작은 재원으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유엔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이면서 책임성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국제사회가 유엔과 더불어 세계적 선정(good governance)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방과 즉시 대응의 강화 그리고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준비태세 제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안한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감축, 비확산 노력도 배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 안전을 제고하고 핵 테러리즘을 차단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국제적 현안들이 있습니다. 아랍의 봄은 튀니지 이집트 예멘 리비아 그리고 시리아에까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여망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어렵게 이룬 한국의 민주화 경험에서 배울 교훈이 많습니다. 저는 과도기를 겪는 지도자들이 편협한 이익을 넘어서서 국민의 열망에 조속히 호응하여 역사의 대세를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이루어진 휴전이 양측에 의해서 무시되고 위반된 데 대해서 경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에서는 이 순간에도 무고한 시민의 비극적 희생이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전이 지켜지지 않은 채 이슬람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휴일동안 450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시리아 지도자와 반정부 단체들은 물론 모든 인류에게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해법에 이견이 있더라도 인명 살상이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리아 국민들은 자국이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전환되고 변화되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거나 중단시키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군사적 해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대화와 중재 대신 무기에 의존하는 양측 모두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시리아 국민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혈사태를 즉시 중단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당사자인 시리아 정부와 무장반군단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시리아 지도자들이 즉각적으로 폭력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제사회 전체가 합심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책임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국들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엔은 지난 5년간 ‘국민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을 국가 주권의 불가분의 책임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국민 보호 책임은 국가가 자국민들에게 심각한 국제 범죄, 즉 대량 살상, 인종 청소, 전쟁 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비도덕적이며 용납될 수 없다는 세계적 확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인사는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언제 어느 때나 국제적 범죄는 더 이상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 보호 책임 원칙이 시험을 받았으나 확고히 견지되었습니다. 완벽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민주주의가 코트디부아르에서 복구되었고, 독재에 대한 민중봉기가 일어났던 리비아에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최근 20년간 유고, 르완다, 캄보디아, 레바논, 시에라리온에서 특별 법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송상현 판사가 지금 현재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제 형사정의 실현에 중요한 제도적 진전입니다. 여기에서도 다수의 한국인 판사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랍의 봄에서 시작된 변혁의 바람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바람은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시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과 내외 귀빈 여러분!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분쟁 예방과 대처,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등 세 가지의 큰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두에서 성공한 국가로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범 사례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촉매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의 개발 경험 전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실로 큼니다. 과거 ‘수혜자’에서 이제는 ‘기여자’로서 많은 일을 해오고 있는 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일동 박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아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대외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과거의 도움에 대해서 보답하고 한국이 존경받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첩경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한국의 중요한 개발원조 대상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아프리카는 자원의 보고이자 경제적으로도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온정적 기부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인 것입니다.

대외개발원조의 질적 효과성을 개선하는 선진 체제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8월에 민관이 함께하는 개발협력연대를 출범시킨 것을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도 대외개발원조를 2015년까지 국민 총소득의 0.25%로 증액하겠다는 한국의 방침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에 그

치지 말고 국제적 목표인 0.7%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국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희망합니다.

둘째,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남은 3년간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MDG 목표 연도인 2015년은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2015년 이후의 개발 의제와 지속 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아울러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회 UN-MDG 포럼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체적으로 만드신 MDG 포럼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창설된 조직입니다. 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새롭게 선출된 제19대 국회가 제1호 안건으로 빈곤퇴치기여금 연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 세계적 지도력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셋째, 유엔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특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양 증진, 기아 종식’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영양실조와 기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기아를 종식시킴으로써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부산 개발원조 총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모든 사람들의 식량권 향유와 모든 식량 체계의 지속가능한 공급목표에 대외개발원조가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자 보건은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의 중심적 사업입니다. 모든 여성과 모든 아동(Every Woman, Every Child) 사업은 2015년까지 1600만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260여 민관 협력파트너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까지 전 국민 의료보험 공약을 이행하고 의료보험 제공을 통한 통합적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이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육 우선(education first)’ 사업도 출범시켰습니다. 저는 세계 각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의 교육투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성공

에 기여했는지를 설명합니다.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 유엔의 도움으로 교과서를 받아서 공부한 경험에 대해서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에서 많은 나라가 큰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우선사업은 모든 아동들에게 학교의 문을 열고 학습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6100만의 어린이들이 모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가능 에너지(sustainable energy for all)’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세 가지의 보완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70억 세계 모든 주민들에게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2배로 증가하고 셋째, 세계적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배로 증대하자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분야에서 강한 지도력과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세기에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에너지 변혁을 직접 지켜보고 그 혜택을 누려 왔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특히 기후변화는 명확하며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2015년까지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합의에 달성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결집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로부터 이 지구를 빌려 쓰고 있다 이런 엄중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들이 극심한 기상 이변의 공포 없이 살 수 있도록 지구를 잘 보존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많은 곳에서 극심한 기상 이변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기후 변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전략입니다. 한국은 스스로 설정한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적 감축을 선도하는 역할까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주 서울에서 세계녹색성장연구소의 국제기구 출범식이 개최된 것과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사무국 소재지로 한국을 선정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반영합니

다. 선발개도국으로서의 경험에 바탕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잘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기후변화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행기금을 확보하는 데 한국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을 희망합니다.

넷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평화·번영을 추구해 온 한국의 경험은 국제평화 유지 기여에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이래 재정적 기여와 함께 평화유지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왔습니다. 모범적인 기강과 진정 어린 대민봉사 활동으로 한국부대는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교량역할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레바논과 아이티에 이어 최근 남부 수단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결정해 주신 데 대해서 유엔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평화유지군과 더불어 경찰 인력, 특히 여성 경찰관 파견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이 2010년 PKO법을 제정하고 상비부대를 창설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협력들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8일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선출되었습니다. 9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는 그간 한국의 유엔 기여에 대한 회원국들의 평가이자 앞으로 국제 평화와 개발에 더 큰 기여를 바라는 희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국제평화 기여국 이미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한국의 국격 제고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이 보다 효과적인 분쟁 예방 장치의 마련 그리고 보편적 인권과 가치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인권·부패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과 대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한국의 경험에 바탕하여 솔직한 충고를 해 줍니다.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듣기 거북해 하지만 한국의 경험을 듣고 한국의 성공을 보고 변화의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런 점이 한국이 갖고 있는 연성 국력(soft power)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한국이 여성과 젊은 세대의 권익 신장

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있지만 세계 인구는 개발도상국에서 늘어나면서 지금 인류의 반 이상이 25세 이하입니다. 세계는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 도전이며 기회 균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회원국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고위직에 여성을 더 많이 배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아직도 단 한 명의 여성이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열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 지도자들에 대해서 제가 국회의 법을 바꾸든지 선거법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여성 국회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더욱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 국회에도 더욱 훌륭한 많은 여성 국회의원들께서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유엔 고위직에 여성의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유엔에서 유엔사무총장을 제외한 최고위직인 유엔사무차장 직위에 여성 진출을 60% 이상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해외 주둔 병력을 지휘하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문호도 여성에게 대폭 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소수자 인권 보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난민 보호와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HIV 양성자에 대한 여행 제한을 철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로서 환영합니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이주한 주민들의 한국 정착과 사회 동화를 촉진하는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더욱 진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관련국들은 이들을 보편적 인권과 인도적 고려에 입각하여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과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반도 상황이 보

다 안정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저의 열망은 누구보다도 큼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하고 주민생활 개선에 앞장섬으로써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5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행한 첫 공개연설에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사람과 손잡고 나갈 것이며 인내심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언급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국별 인권 심사의 권고가 이행되어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는 남북이 궁극적 통일 그리고 핵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해 나가는 데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일동 박수)

유엔사무총장으로서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북한 방문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취약 주민을 돕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영유아들의 영양 결핍에 따른 발육 부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시급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엔은 지원물품이 전용 없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최선의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민족 전체의 이익을 보는 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국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반도가 도전의 땅에서 이제는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는 지역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세계 중심축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는 역내 교역과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의 갈등요인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과 대화에 기초하여 미래를 내다보면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다방면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양자간 협력이 증진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역내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협력을 증진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됩니다. 유럽 아프리카 남미 대륙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역내 통합과 협력의 가속화 추세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자주의가 중요하고 한

국이 교량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새로운 동아시아의 질서 형성과정을 주도할 수 있기를 아울러 소망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곳곳을 방문하면서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험지와 분쟁지역을 마다하지 않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한국인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서 순직한 젊은 봉사단원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분들의 진정한 봉사정신은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오래도록 기억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들 봉사자들을 통해서 한국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한국의 봉사단원들의 규모는 국력을 감안할 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인들의 순수한 열정과 따뜻한 봉사정신은 국제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으며 유엔봉사단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해 꿈을 더욱 키워 나가고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실현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일동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한 외교단과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는 어느 누구도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 두 번째 유엔 사무총장 임기의 취임연설에서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늘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금언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6년 전 유엔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한국적인 가치와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성공 이야기(success story)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조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크게 기여하고, 보다 큰 존경을 얻어 선진강국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성공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대한민국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빈곤 종식, 민주주의 실현, 인권 신장, 평화 증

진,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것을 세계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엔이 추구하는 꿈, ‘우리가 원하는 미래’, 즉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여정에 대한민국이 유엔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유엔사무총장 취임 이래 저를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제11회 서울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권위 있는 서울평화상 수상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그간 유엔의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복지와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유엔사무총장에 취임한 첫 날부터 솔선수범하며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자세로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원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토록 혼신의 열정(passion and compassion)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깃들고, 국민 여러분께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46분)